

저는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에 대해서 경험한 것과 저의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의견을 말하자면, 공공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의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고 개인만의 장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겠죠. 만약, 「누구나 담배 피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 금지하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따위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으면, 담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도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이같은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때때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그럼, 나는 기분이 매우 불쾌해집니다. 담배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날것 같이 됩니다. 또 담배는 간접적으로도 피해를 줍니다. 담배를 피우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도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담배의 광고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담배는 TV에서 방송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V광고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TV에서 담배를 광고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어린이·중고교생들이 담배를 피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으로 담배는 어른에게도, 어린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피우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